

방사성 폐기물이 고철 형태로 수입

방사성 폐기물이 고철 형태로 검증절차 없이 수입되고 있어서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8월 5일 보도자료에서 “98년 이후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된 고철 가운데 방사능에 오염된 것은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며 “방사능 검출장비를 첫 도입한 시기가 97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4건 이상의 오염 고철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입국가별로 보면 일본·태국·말레이시아 각 2건, 인도네시아·러시아·홍콩 각 1건 등이며 특히 러시아 수입 고철의 경우 지난 98년 유럽에서 사회문제가 됐던 세슘 137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83년 이후 세계적으로 확인된 49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 사례중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무방비지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지난 1월 감사원이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해 ‘방사성물질 취급 및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해 보고서를 작성해놓고도 ‘조사 내용이 사회혼란을 유발할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고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문화일보: 99/08/05 >

지하수, 생수에 방사성물질

정부의 조사결과 대전시와 충남·북, 경기, 강원지역의 일부 지하수에서 세계보건기구와 선진국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또 시판되고 있는 일부 생수제품에서도 미국의 ‘제한치’를 훨씬 넘는 우라늄 성분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11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국자원연구소(책임연구자 성익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전시 법2동 삼익 소월아파트내 지하수 등 5곳에서 캐나다의 수질기준치(ℓ당 100ppb)를 최고 4배, 미국의 제한치(규제치 이전단계)를 최고 20배 초과하는 우라늄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충남 괴산군 연풍면 요동 등 2곳에서는 전총 알파(알파선 배출물질) 성분이 미국 규제치(ℓ당 15피코큐리)를 1.8배, 세계보건기구 규제치(2.7피코큐리)를 1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판중인 충북 괴산군의 ◻음료와 경기 포천군 ◻음료, 전남 담양군 ◻샘물 등 3가지 생수제품에 미국 제한치(20ppb)를 초과한 우라늄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아산시 ◻음료, 천안시 ◻음료, 울산시 ◻음료 등 11곳은 전총알파 성분이 세계 보건기구 기준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문속의 RI뉴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우라늄 성분이 많은 변성암으로 이뤄진 옥천대 지층에 속해 있어 이들 성분이 지하수에 녹아든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 지역의 지하수와 생수제품을 마시지 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전국적 조사사업을 벌여 국내 규제기준을 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99/08/11 >

4개 원전주변에 대한 방사능 오염징후는 없다.

원전 가동이후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한 국내 4개원전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이나 축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학계 연구결과 나타났다.

경북대 강희동(물리학과), 부산대 이대원(물리학과), 광주과학기술원 이재석 교수는 한국전력이 12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원전환경 관리 워크샵'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수들은 "현재 가동중인 월성, 영광 등 4개 원전주변에 대한 토양, 농작물, 물, 해저토, 해수, 해양생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이 가동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의 축적이나 오염징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6년부터 한전으로부터 원전주변의 환경 오염실태조사를 용역 받아 경북대 강교수는 월성과 울진원전, 부산대 이교수는 경남의 고리원전, 광주과기원 이교수는 전남 영광원전 주변을 대상으로 각기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충북대 김영환교수는 4개 원전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의 영향'이란 특강을 통해 극히 제한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용하기에 따라 유용한 경제자원이 될 수 있다"며 온배수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최양우 한전 원자력사업단장은 "국내 모든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허용치보다 충분히 낮아 안전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원전의 운영에 있어 안전성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는 4개 원전지역 시·군 관계자와 국회의원, 주민대표, 학계, 관계기관 관계자 등 모두 3백여명이 참석했다. <중앙일보: 99/08/12 >